

벼멸구 피해 관련 3대 대책 건의 임실군, 국민 소유권 보호 앞장

최영일 순창군수, 구림면 피해 지역 방문한 김관영 도지사에 요청

순창지역 벼멸구 피해 확산으로 긴급 공동방제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최영일 군수가 김관영 도지사에게 특별 지원을 강력히 요청해 주목받고 있다.

최 군수는 지난 22일 벼멸구 피해가 많은 구림면을 방문한 현장에서 김관영 도지사에게 세 가지 핵심 사항을 건의했다.

첫째, 벼멸구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농업재해로 인정해 줄 것과 둘째, 피해가 많은 순창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또한, 정부 구매 시 피해 지역 곡물을 전량 구매해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해 줄 것 등 벼멸구 피해 관련 3대 대책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날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순창군 벼멸구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농가의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이 자리에서 최 군수는 심각한 경제적 타격과 생계 위협에 대해 호소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순창군은 벼멸구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긴급 공동방제에 나섰으며, 이번 방제 작업은 벼멸구로 인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지역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지난 22일 벼멸구 피해가 많은 구림면을 방문한 김관영 도지사에게 특별 지원을 건의했다.

실제로, 군은 예비비 6억여 원을 투입해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총 4,573헥타르의 벼 재배지를 대상으로 방제를 실시할 것이며, 이는 순창군 전체 벼 재배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규모다. 특히, 군은 일반 재배지뿐만 아니라 친환경 재배지를 위해 대부분 친환경 약제로 방제를 계획하며, 지역농협과 협력해 광역방제기와 드론을 활용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방제를 계획하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공동방제와 특별 지원 요청은 벼멸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다"면서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농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김관영 도지사의 방문과 최 군수의 적극적인 대응은 순창군 농업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피해 극복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아시아 테니스 유망주 한자리에

남원 14세 국제 주니어 테니스 대회 개최

남원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장에서는 2024년도 ATF(아시아 테니스 연맹) 남원 14세 국제 주니어 테니스 대회가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개최된다.

아시아 테니스연맹과 대한테니스협회가 주최하고 남원거점스포츠클럽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ATF 공인 국제 주니어 테니스 대회로 아시아 랭킹 200위까지의 선수들만 참여할 수 있으며, 경기성적에 따라 랭킹 점수를 부여하여 선수들의 랭킹이 결정되어 아시아 테니스의 미래인 유망주들에게는 꼭 필요한 대회라고 할 수 있다.

800여명의 선수와 가족 및 코칭스텝 등이 참여, 9월 22일과 23일 2일간 예선전이 진행되었으며 24일부터 28일까지 본선을 통해 우승자를 가릴 예정이며, 남원 거점스포츠클럽 소속 윤봉초 김진홍(남자부), 남원초 장예림(여자부) 2명의 선수가 참가할 예정으로,

2022년 월드컵 테니스대회 14세부 남자단체에 우승한 조세혁을 이을 수 있는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거점스포츠클럽은 지난 6월 남원시 장기 제1회 꿈나무 테니스대회 및 금번 테니스 대회개회를 통해 이덕희, 김춘호 등 유명 테니스 선수를 배출한 테니스의 고장 남원의 명성을 잇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진장식 클럽 회장은 "남원 거점스포츠클럽은 공부하는 운동선수 육성을 위해 방과 후 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지도자를 통한 엘리트 선수 육성 및 동호인 육성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많은 체육대회를 유치 및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진드기 물림 주의 당부

임실군이 농작업 수행, 임산물 채취 등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국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쯤쯤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며, 야외활동이 많은 중장년층과 면역력이 약해지는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쯤쯤가무시증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중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쯤쯤가무시군에 감염된 뒤 진드기 유충에 물리면 10일(잠복기) 이내 발열, 오한, 근육통, 발진, 두통 등의 증상과 진드기에 물린 부위에 검은 딱지(가피)가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부 노출 최소화해 안전하게 옷 갖춰 입기 △방석, 돛자리, 기피제 등 보조도구 사용하여 진드기 접촉 피하기 △귀가 즉시 착용 복장 일체 세탁 및 샤워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해 진료받기 등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20여년 장기 미해결 지적 민원 처리 '화제'

임실군이 20여년 장기 미해결 토지에 대한 상속·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상금을 지급해 지적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앞장서 화제다.

군은 지난 8월 2일 임실읍사무소에서 소유권자 중 장남 최모 씨를 만나 보상 협의에 대해 안내하고 찾아가는 보상 협의 서비스를 통해 상속·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청구까지 1회 방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이후 27일 이해관계자에게 설명 후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상속 등기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군청에서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처리했다.

먼저 이곳은 20여년 전 임실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한 도시계획도로이며, 이종 소로 2-15구간 총 140m 중 약 40m 구간이 인도가 없어 학생과 학원생들에게 통학 시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 지역은 소재지 한복판이며 임실 동중학교와 학원들이 많아 통학로 개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인도 개설을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과 안전사고 없는 거리를 조성했다.

특히, 사업추진계획수립, 예산확보, 분



할측량, 감정평가, 부지매입, 설계, 착공 및 준공까지 통상적으로 2~3년씩 걸리는데 이 모든 사항을 100일 만에 기적 같은 통학로가 만들어진 것이다.

추진 과정에서 임실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한 노선 2개소에 대한 토지 지목변경과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고 지목변경, 토지합병까지 깔끔하게 처리했다.

임실군은 '20여년 미개통된 통학로, 100일 만에 개설로 등갓길 편이'라는 사례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군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장기 미해결 2필지에 대한 찾아가는 보상 협의 서비스를 통해 상속 등기,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을 1회 방문으로 지적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한 것이다.

심 민 군수는 "앞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앞장서고 적극행정 확산과 장려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딸기 정식 초기 생육 관리 현장 지도

임실군이 본격적인 딸기 재배기가 시작됨에 따라 정식 초기 생육 관리 및 병해충 방제를 위한 현장 지도에 나섰다.

올해 이상기상으로 화이분화 시기가 늦어지는 만큼 정식 시 화이분화 여부를 확인하고 정식해야 안정적인 딸기 수확이 가능하다.

화이가 미분화된 묘를 정식하면 개화가 늦어져서 수확시기도 늦어질 뿐 아니라 꽃눈이 분화된 묘를 늦게 정식하면 영양생장이 약해지고 수확량이 감소한다.

남원시, 27일까지 합동 화랑훈련

남원시는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 동안 화랑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2024년 화랑훈련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역에서 진행하며, 육군 35사단의 주관하에 진행, '지자체장 중심의 지역 통합 방위태세 확립'을 목표로 시, 103여단, 남원경찰서, 남원소방서 등 국가방위 요소 전 기관이 참여한다.

남원시는 군·경의 작전을 지원하기

고품질 딸기 생산을 위해 정식 초기 뿌리 활력이 원활하도록 2주간은 잎을 따주지 않고 정식 후 하우스 내 고온 경감을 위한 환기 및 개폐장치를 활용하고 활착과 초기 생육을 위해 차광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딸기의 안정적인 수확을 위해 정식 초기 병해충 관리로 시들음병, 탄저병, 작은뿌리파리, 선충 등은 정식 후 2~3회 조루관주를 통한 예방 방제하며 이후 병해충 방제력을 참고하여 주기적인 방제가 이뤄져야 고품질 딸기 수확이 가능하다.

/임실=진홍영 기자

위해 23일부터 28일까지 통합방위지원 본부를 설치 운영해 군사작전지원 및 상황대응 훈련을 실시하며, 통합방위 지원본부 중심으로 민관군경의 유기적인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남원시민의 안보의식 고취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훈련기간에 실제 대항군을 투입해 대응훈련을 실시 상황 수준으로 진행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인구변화 대응 위한 공직자 인구교육

순창군은 지난 2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180여명을 대상으로 '2024년 공직자 인구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공직자들의 인구 관련 지식을 향상시키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은 인구나 미래정책연구원 이우택 강사를 초빙해 진행됐다. '인구변화의 이해와 미래 준비'라는 주제로 △인구변화에 따른 미래 예측 △지방소멸의 원인과 청년인구의 중요성 △지방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각 지자체의 사례 등을 다뤘다.

참석한 공직자들은 인구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인구 문제는 일자리, 교육, 생활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줄 것"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보건소, 10월 임산부의 날 기념 행사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10월에 2024년 임산부의 날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임산부의 날은 매년 10월 10일로, 중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 기간 10개월을 의미하며, 이번 행사에서는 △두근 두근, 출산 준비교실 △임산부 애크럽 인증 이벤트 △가정방문 모유수유클리닉 △영유아 부모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등이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임산부는 보건소 모자보건팀(063-620-7981~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용재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환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